

‘부부의 세계’ 한소희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이태오-여다정, 이해할 수 없어…
김희에 연기에 무기력함 느끼기도”

분명 드라마에선 한 대 때려도 속 시원치 않은 ‘상간녀’인데, 남편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의 ‘워니비’가 된 이유는 뭘까.

25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라운드인터뷰로 만난 배우 한소희(26·사진)는 욕은 먹었지만, 인기를 얻은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며 소리 내 웃었다. JTBC ‘부부의 세계’에서 도도한 여다정과 달리 실제로 만난 그는 털털하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드라마 방영 중 출연, 문신 등 과거 사진이 발굴되며 당황할 법도했지만 “그때의 모습도 나고 지금의 모습도 나”라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한소희는 극 중 이태오(박해준 분)의 바람 상대이자 그와 결혼까지 하는 여다정역으로 분했다. 극의 흐름상 ‘욕받이’가 되는 건 인지상정이었다.

“악역으로 욕먹으면 칭찬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 욕을 먹는 게 크게 좋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관심이고 여다정 캐릭터에 잘 집중해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청자들보다 가족들, 친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물어봤을 의문, ‘도대체 여다정은 왜 이태오를 좋아하는 걸까’에 대해 한소희는 “처음에 풀어나가야 했던 관문 중 하나가 이 질문”이라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경이는 왜 애 딸린 유부남을 사랑할까요? 어리고 금수저에 부족한 거 없이 자랐는 데도요. 사실 다경이 캐릭터는 부모님의 권력에 등 떠밀려 살아온 인물이에요. 반면 태오는 ‘취월’도 가진 게 없지만 열정 하나로 독립영화부터 시작해 예술산업에 맨땅에 헤딩하듯 뛰어들잖아요. 다경이 눈엔 그게 멋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불륜 상대 이태오를 연기한 박해준을 가리켜) 진짜 잘 생기셨어요(웃음).”

한소희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지선우가 여병규 회장 불륜을 폭로하는 식탁신을 꼽았다. “아무래도 김희에 선배님 뒤통수를 때리는 그 장면이 무서웠어요. 선배님을 감히 제가 때린다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죠.”

선배 배우이자 극의 중심 지선우로서 드라마를 이끌고 간 김희에에 대해 한소희는 “선배님을 보면서 부족한 역량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완벽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세계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를 하고 나니 감히 결혼은 시작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은 못 할 것 같아요. 결혼이란 것 자체를 차마 시작도 못 할 것 같아요(웃음). 지선우와 이태오의 애증,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을 죽도록 싫어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랑만 하고 살 수 없는 관계가 부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합뉴스

솔로 출격 김우석 “도전적인 변신 시도”

엑스원 출신… 타이틀곡 ‘적월’
“한순간도 긴장감 놓을수 없어”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고, 무대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더 긴장되고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보이그룹 엑스원(X1) 출신 김우석(24)이 25일 솔로 가수로 대종 앞에 선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첫 번째 솔로 앨범 ‘퍼스트 디자이어 [그리드]’ (1ST DESIRE [GREED])를 발매하고 활동에 나선다.

김우석은 이날 소속사 티오피디어를 통해 전한 일문일답에서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솔로 앨범인 만큼 부담감도 상당했고, 걱정도 많이 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부담감과 걱정이 설렘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신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앨범 발매에 앞서 공개된 타이틀곡 ‘적월’(赤月) 티저 이미지를 통해 김우석은 화려하면서도 몽환적인 면모를 선보였다. 강렬한 표정 연기도 펼친다. 그가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이기도 하다.

그는 “대중적인 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솔로 앨범인 만큼



솔로 데뷔하는 김우석.

퍼포먼스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앨범 제목처럼 점점 욕심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월식에 빗대 가사를 썼다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팬들에게 보내는 노래인 ‘뷰티풀’(Beautiful)도 수록됐다. “꼭 찾은 게 내가 내게 해줬던 것처럼” 등의 가사에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담았다.

김우석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그룹 엑스원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올해 초 엑스원이 해체된 후 솔로 컴백을 준비하며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웹드라마 배우에도 도전했다.

연합뉴스

차트 찍고 감성도 올린 ‘슬의생’ “숨겨진 명곡, OST로 재조명했죠”

‘사랑하게 될 줄…’ 등 히트
아날로그 음악으로 풀어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 우리 처음 만난 그 날에…”

이이준(조정석)은 슬기로운 별이 신호범의 2006년 곡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부른다. 눈은 노래방 화면에 고정돼 있지만, 누구를 향한 노래인지는 분명하다. 옆자리 채송화(전미도)의 표정이 애뜻해진다. 이십년지기 ‘친구’라는 이름 아래에 흐르던 악조와 송화 사이 미묘한 기류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

이준의 노래는 배우 전미도가 직접 부른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시 이어지며 극 중 감정선에 입체감을 더한다. 전미도가 부른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는 지난 22일 정오 발매된 후 멜론을 포함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휩쓸며 차트 파워를 톡톡히 발휘했다.

드라마에서 음치인 송화를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뮤지컬 배우로 활약해온 전미도는 이 곡에서 깨끗한 음색과 ‘반전 가창력’을 선보였다. 신호범 원곡이 함께 차트를 역주행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를 제작한 스튜디오 마음C를 이끄는 마주희 프로듀서는 “조정석씨가 ‘아로하’를 불렀으니 전미도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 참 훈훈하겠다는 건 믿고 있었는데, 분방송을 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전했다.

역시 차트 1위를 휩쓴 조정석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부른 전미도.

‘아로하’(쿨 원곡)를 비롯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삽입된 주역의 노래들은 각 에피소드의 테마 역할을 하며 화제가 됐다. 1990~2000년대 아날로그 감성 명곡들이 주인공 5인방의 밴드 합주 신과 리메이크 버전으로 매회 등장한다.

부활의 ‘론리 나잇’(1997),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1996),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1993),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사랑’(1999), 동물원의 ‘시청앞 지하철역에서’(1990), 모노



‘아로하’ 부른 조정석.

의 ‘넌 언제나’(1993) 등이 다시금 사랑받았다.

최근 전화로 만난 마주희 프로듀서는 “‘숨겨진 명곡’ 콘셉트도 섞여 있었다”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조명됐을 때 참 좋겠다 싶은 곡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드라마의 만들새나 구성, (의학 드라마로서) 훌륭하게 잘 나온 전문성, 그리고 그 감성을 잡아주는 음악과 밴드의 적절한 조화”를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의 인기 비결로 꼽았다. 연합뉴스

6연승 주윤발은 강승윤… ‘복면가왕’ 시청률 10%

매번 몸집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며 6연승을 달린 주윤발의 정체는 워너 강승윤이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 방송한 MBC TV 예능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시청률은 6.0%~10.0%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7연승에 도전하는 주윤발과 이에 대적하는 4인의 복면 가수를 무대가 펼쳐졌다.

가왕은 방여전에서 부활의 ‘론리 나잇’(Lonely Night)를 불렀다. 하지만 11대10으로 방패가 128대 가왕에 등극했다. 이후 복면을 벗은 주윤발의 정체는 워너의 강승윤이었다. 강승윤은 “가왕이 될 거라고 기대 못 했다. 연승을 성공한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매번 감사하게



강승윤.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왕관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덕에 매번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동시간대 방송한 KBS 2TV ‘1박2일’은 7.6%~10.9%, SBS TV ‘동거 못 했다. 연승을 성공한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매번 감사하게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야생영정(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기막힌 유산(재) 9:40 무한리얼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제보자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0 기분 좋은 날 10:4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얼마가 바람났다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삼맛 나는 오늘 11:00 무라키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덩동맹 유치원 9:30 페파 피그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정오뉴스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0 꼬마버스 타요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0 피시 16:40 덩동맹 친구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나 19:4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니우스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팔도방송 15:00 숨터 15:05 생로병사의 비밀(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12:05 생생정보 스페셜 12:40 도올학당 수디스쿨(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동차부착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얼 샐러드 17:00 영화가 좋다(재)	12:00 12 MBC 뉴스 12:20 때리락 때리락 똑딱맨 12:50 뽀롱뽀롱 모두야 놀자 13: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사람(재) 16:00 테마여행 길 17:00 5 MBC 뉴스 17: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네오세로(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30 김형철의 뉴스쇼 9:05 김대형에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자강점판공임니다 21:35 라디오간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보물섬 20:30 기막힌 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숨터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0: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22:00 본 에게인 22:35 본 에게인 23:10 스탠드 업 1부 23:50 스탠드 업 2부	18:3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19:35 MBC 뉴스데스크 20:5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22:40 MBC PICK(재) 22:50 PD수첩 23:50 콘대인턴(재)	18:00 행복설계 일찌배기(재) 19:00 열린예술무대 뒤란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2캐스팅 22:20 2캐스팅 23:00 불타는 청춘 1부 23:40 불타는 청춘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특목TV터 12:40 배워볼수록 광광국어 14:00 방송콘텐츠 경영대회 15:10 심 이어 인턴 17:00 KCTV 뉴스 18:00 방송콘텐츠 경영대회 ‘꿈을 그리다’ 18:30 특목TV터 19:00 KCTV 뉴스7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6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왕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분실 또는 손재가 발생하니 문서나 지갑을 잘 관리하라. 48년 재물에 이익이 생기거나 문서 계약에 관한 일이 오간다. 60년 자녀 또는 아랫사람과 논쟁이 있을나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 72년 함께 웃음이 나 음식을 나눠먹을 일이 생긴다. 이성교제 원할. 8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온다.

37년 마음에 갈등이 심화되고 분노, 증오가 일어나도 동요하면 불리. 49년 동료, 동업자와 안정, 시비수가 있다. 61년 하는 일이 안 풀리면 배우자 또는 아랫사람과 상의하면 해답을 얻는다. 73년 부모나 윗사람 일로 근심이 생긴다. 안부전화 또는 방문해 볼 것. 85년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에서 두각을 발휘.

38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0년 많은 생각과 긴 검토는 기회를 달아나게 한다. 순간포착이 필요한 때. 62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이익이 생기거나 훗날 결과가 있다. 74년 마음이 급하고 서두른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86년 결과를 분석하고 시작하라.

39년 계약건에 성사가 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51년 친목이 필요. 아랫사람과 의견 조율이 곧 나의 명예와 직결된다. 63년 몸이 분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이익 증가. 75년 이동, 변동 활동력이 많아지고 급전적 지출도 생긴다. 87년 젊음은 도전이다. 미래를 위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라.

40년 내부에서 불화가 생기나 언젠 시 우의. 52년 답답하다. 주변의 도움은 적고 내가 도와야 하니 몸이 피곤하다. 64년 잘 알지 못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상가라. 망신수가 있다. 76년 혼자 결정을 망설이지 말고 주변의 지혜를 모아라. 88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 능력이 배로 증가하기도 한다.

41년 모임이나 기쁜 일에 참가할 일이 생긴다. 53년 교통, 관제구설이 따르니 외출 자제. 조끼귀가 하는 것이 좋다. 65년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가족간 불화 조짐이 보인다. 77년 외출이나 여행계획이 생기거나 손님 방문으로 분주하다. 89년 전전화의 시대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42년 남의 일에 간섭은 나에게만 골 망신이 된다. 참견은 자제. 54년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모임이나 약속, 계획을 지킬 수 없다. 66년 슬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8년 강한 추진력이나 독단성보다 협력과 화합이 요구되는 때. 90년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 생각은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43년 가족 또는 부부간에 충돌이 있으니, 배려로 해결하라. 55년 허황된 과욕은 금물. 안정과 절약이 우선되고 투기는 신중히. 67년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나 적응하라. 79년 자금지출의 손재수가 있으니 과소비하지 마라. 91년 마음을 비우고 먼저 한쪽을 양보하면 쉽게 해결된다.

44년 화합과 모임이 있으며, 가족외식 등 먹거리가 풍족하다. 56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속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68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취득하는 때. 자식의 기쁜 소식을 접한다. 80년 기혼자는 신경 풀일이 생긴다. 미혼자는 길. 92년 상대가 내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의 소지가 발생.

45년 평소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익이 될 수 있다. 57년 분실 또는 실수가 있으니 금전 또는 지갑 보관을 잘 해야 한다. 69년 구매통통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81년 서두르면 일이 안풀린다 신중하라. 특히 급전거래는 불리. 93년 가족간 의사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되는 날.

46년 각종 인허가건이 생기거나 계약할 일이 발생. 관공소 납품업은 분주. 58년 친구나 동료간 모임이 있다. 활동력 왕성. 70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오나 반감지 않다. 배반 또는 구설수가 온다. 82년 여성에겐 이성이 다가오고 새로운 발상을 하려 한다. 94년 가족이나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라.

47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59년 배우자나 남의 의견을 수렴해 자기의 생각을 비교 개선하라. 71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으로 스트레스. 83년 직업 변동이 있거나 시험에 관한 즐거움이 온다. 95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